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angue et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engua y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Wednesday 4 May 2016 (afternoon)
Mercredi 4 mai 2016 (après-midi)
Miércoles 4 de mayo de 2016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Question 1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
- Question 2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
- Choose either question 1 or question 2. Write one comparative textual analysis.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La question 1 comporte deux textes pour l'analyse comparative.
- La question 2 comporte deux textes pour l'analyse comparative.
- Choisissez soit la question 1, soit la question 2. Rédigez une analyse comparative de text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n la pregunta 1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
- En la pregunta 2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
- Elija la pregunta 1 o la pregunta 2. Escriba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os textos.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문제 1이나 문제 2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 1. 다음의 두 글을 비교·대조 분석하십시오. 두 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글의 전체 맥락과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 형식과 문체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쓰십시오.

글 A

2020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5년 뒤 주택 선택시 가장 중요한 공간조건 (1순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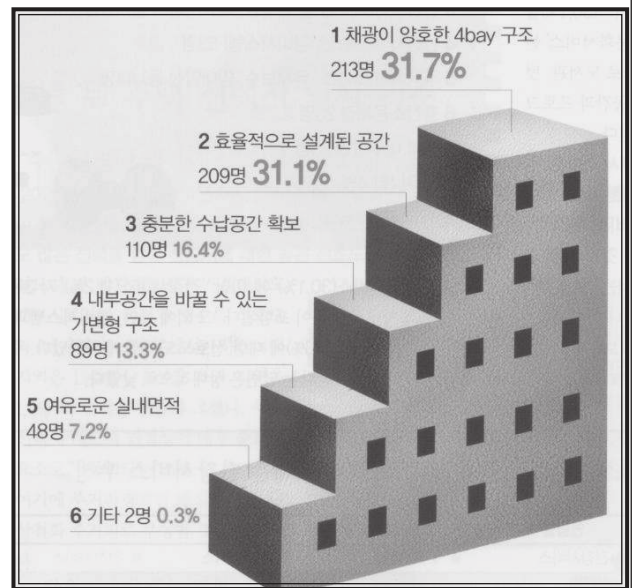
“채광 좋은 4bay* 구조에 효율적인 공간 원한다”

- 5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2020년 미래주택의 실내공간 조건은 “채광이 양호한 4bay 구조(31.7%)”다. 더불어 “효율적으로 설계된 집(31.1)”에 살고 싶어했다.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16.4%)”와 “내부공간을 바꿀 수 있는 가변형구조(13.3%)”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4bay 구조와 효율적인 공간설계가 압도적인 점수를 얻었다.

10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공간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아파트가 도입된 이래

15 평면의 변화를 연구하고 중국, 일본과 비교 분석해온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아파트 평면은 거실을 중심으로 주방, 식당이 통합적으로 구성된 LDK (거실 + 식당 + 주방)를 선호하며 넓고 시원한

20 공간감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녔다. 이는 비단 아파트 평면에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다. 일반주택들도 비슷한 양상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대청마루가 집의 중심을 이루었던 전통한옥의 배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4bay 구조는 전망이 좋은 향에 많은 실을 배치함으로써 채광과 개방감을 중시한 구조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미래주택의 내부공간

- 25 “모든 성별, 연령에서 거실이 가장 중요-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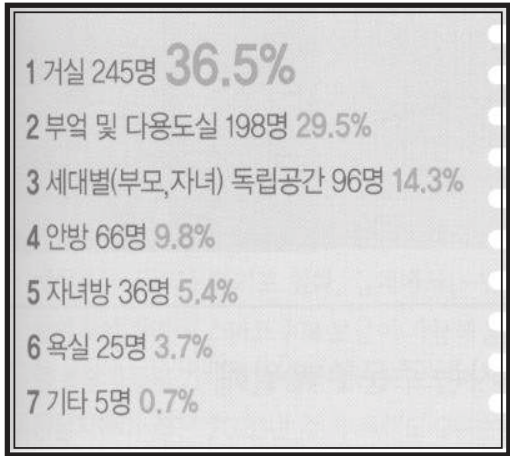
미래주택 선택시 응답자들은 “거실(36.5%)”을 가장 중요한 내부공간으로 선택했다. 뒤 이어 “부엌 및 다용도실(29.5%)”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세대별(부모, 자녀) 독립공간(14.3%)”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안방(9.8%)”과 “자녀방(5.4%)”이 뒤를 이었고, “욕실(3.7%)”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났다. 실내공간에 대한 중요도 순위는 성별과 상관없이 전 연령대에서 같게 나타났다.

30 거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거실을 중심으로 실이 연결되는 개방형 평면을 선호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실이 거실과 연계되고 손님을 맞을 때도 거실까지 들어오는 구조이다

35 보니 집의 중심이 거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0 주택저널 200호 특집으로 2005년 4월호에 진행된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에서도 내부 공간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으로 거실 (55.8%)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바 있다.

45 이번 설문과 마찬가지로 부엌 및 다용도실 (20.9%)이 2위로 뽑혔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공용공간 인테리어에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이는 분위기와도 맞는다. 거실에는 벽을 가득 채운 대리석 아트월이나 고급마루재가 흔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주방이 숨어있지 않고 거실과 마주보는 LDK 평면을 추구하다보니 주방가구나 주방 벽타일, 아일랜드 식탁 등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다. 주방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생활의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선영 기자, <주택저널> (2015)

* 4bay: 베이(Bay)란,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공간 중에서도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을 말한다. 거실과 방 3개, 이 4개의 공간이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에 있으면 4bay라고 한다.

글 B

말씀하신 글을 써서 보냅니다. 글을 써보려고 하셔서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제안에 어울리는 근사한 대화가 되기에 알맞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쓰는 동안 내내 상상하고 꿈꾸느라 즐거웠습니다. 편하게 읽으시고, 아니다 싶은 곳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

5 집을 이루는 공간에 대한 생각

마당

줄넘기를 하고 체조도 하고 그렇게 운동하려 합니다. 친구들이 오면 철망에 고기를 구워 먹고, 같이 주저앉아 얘기 나누려 합니다. 아이들이 이리로 뛰어갔다 저리로 뛰어다니면 보기 좋겠습니다. 마당에 무덤처럼 때를 입혀 장식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귀티가 나면 가까이 하기 어렵고, 늘 손을 봐줘야 하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침실

- 10 공기가 잘 통하는 방에서 편하게 머무는 상상을 합니다. 방마다 창문 크기와 높이와 모양과 방향이 달라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얻는 느낌 또한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집이 약간 더 풍부해지리라 싶습니다. 어떤 방은 바닥에 앉아서 방바닥에 손을 짚고 창을 내다보고, 어떤 방은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팔뚝을 대고 바깥풍경을 창으로 보고, 그리고 창마다 내다보는 방향이 약간씩 달라서 보이는 풍경이 여러 가지면 이
- 15 집에서 사는 일상이 다채롭지 싶습니다.

욕실

- 20 사치를 부리고 싶은 곳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먼 지역에 가 있을 때, 일을 마치고 지쳐 녹초가 되어 어려울 때, 신기하게도 따듯하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목욕탕이나 온천이나 찜질방에 가면, 가서 옷 벗고 알몸이 되어 따듯한 물을 몸에 대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몸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경이롭습니다. 욕실은 쉼터입니다. 누워서 쉬는 자리가 있고, 거기서 잠깐 책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은 크고, 두 쪽 이상으로 나 있어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송송 불어오면 정말 상쾌하겠지요.

서재

- 25 입식 공간으로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아야지요. 책상은 가로로 길어서 여러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어야 편합니다. 전깃불이 편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연빛은 시간에 따라 빛이 진하기도 하고 옅기도 하고 따듯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느낌이 다채로운데 전깃불은 켜두면 하루 종일 느낌이 똑같아, 사정 봐주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빛에 기대어 책을 좀 더 오래 볼 수 있는 서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실

30 여럿이 모여 함께 떠들기에 좋으면 기쁘겠습니다. 모임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사나흘 머무르며 논의하는 자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와서 대화하고 공부할 때 편하고 쓸모 있는 자리라는 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많을 때 거실을 넓게 쓸 수 있게 거실에 방 하나를 붙여 두고 때에 따라 문을 떼어내 방과 거실을 터서 이을 수 있게 하면 어떨지요.

부엌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

35 부엌은 불을 피워서 먹을 거리를 만들어 사람을 살게 하는 자리입니다. 인간 소외가 생기는 곳이기도 하지요. 남녀가 함께 교육 받고 세상일을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부엌일이 여성에게 떠맡겨지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엌일을 하는 이가 소외되지 않게 공간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주문하는 사람이 소리를 많이 내면, 창작자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 글이 선생님의 상상력을 얽어맬까 걱정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 바람을 늘어놓았다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 2005년 8월 25일

송승훈 올림

이일훈 + 송승훈, <제가 살고 싶은 집은……> (2012)

- 2. 다음의 두 글을 비교·대조 분석하십시오. 두 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글의 전체 맥락과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 형식과 문체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쓰십시오.

글 C

폭주하는 10대들의 욕설문화



- 5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에서 욕쟁이 여학생이 등장해 청소년 욕설문화에 경종을 울렸다. 프로그램은 이 여학생의 일상생활 모습을 보여줬는데 친구, 동생과의 대화는 물론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욕설이 수시로 튀어나왔다. 처음에 10대의 욕설을 한때의 또래문화 정도로 관대하게 봐줄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던 패널도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심지어는 욕설을 한 여학생 본인도 자신의 언행을 TV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고는 충격 받은 눈치였다.

그 여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눈이 작다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강해 보이기 위해 욕설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10 [...]

- 15 과거엔 주로 “문제아”라고 불린 몇몇 아이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욕설문화를 주도했다면 이젠 10대 전체가 욕설문화에 가담하고 있다. 한 현장 교사는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욕은 이제 욕이 아니다. 또래가 쓰는 은어일 뿐이다”라며 “욕은 청소년들의 일상어처럼 변했다”라고 하기도 했다. 전교 1등도, 학급 모범생도, 평범한 여학생들도 거의 누구나 욕설로 대화한다. 버스에서도 청소년들의 욕설 대화가 수시로 들리고, 심지어 교사가 옆에 있어도 욕설을 내뱉는다고 한다.

- 2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EBS가 2011년 말에 중·고생 각각 2명의 호주머니에 소형녹음기를 넣어두고 등교 후부터 점심시간까지 그들의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해 분석한 적이 있다. 그 몇 시간 사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194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오전 시간 대부분은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대화자체가 불가능하다. 잠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다 합쳐 실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일 것이다. 그 짧은 시간에 200차례에 가까운 욕을 한 것이다.

<중략>

이에 대해 일각에선 너무 경직된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10대의 독특한 문화 정도로 인정해주자는 주장도 나타난다. 욕설이 10대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폭력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10대들이 특별히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25 그러나 폭주하는 10대의 욕설문화를 이렇게 안이하게 보는 것엔 문제가 있다. 2011년에 한 여고생이 자살했는데, 친구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조사에선 신체폭력이 21%, 언어폭력이 18%로 나왔다. 욕설도 언어폭력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30 욕설을 남발하는 가운데에 정신적으로 더 황폐해지고, 폭력적 언행에 무감각해지며, 어휘력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 말은 사고를 반영하고, 사고는 다시 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의 욕설문화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입시경쟁으로 붕괴돼가는 학교의 교육공동체성을 복원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재근(문화평론가), *내 손안에 서울* (2015)

글 D

참 좋은 말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혀
한입의 혀로
참, 좋은 말을 쓴다

- 5 미소를 한 육백개나 가지고 싶다는 말
네가 웃는 것으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
오늘 죽을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말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은 슬픔
한줄기의 슬픔으로
참, 좋은 말의 힘이 된다

- 10 바닥이 없다면 하늘도 없다는 말
물방울 작으나 큰 그릇 채운다는 말
짧은 노래는 후렴이 없다는 말

- 15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
한송이의 말로
참, 좋은 말을 꽃피운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란 말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말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온다는 말

천양희,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2011)